

Economy Brief

사우디발 불안 확산과 외교 슈퍼워크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이번주 중동지역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임. 트럼프 대통령과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정상회담 및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중동 정세는 물론 국제유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월 FOMC회의를 기점으로 국채금리가 일단 소강국면에 진입해 있지만 이란 등 중동지역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이 향후 국채금리 방향성을 결정할 것임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호조 등 양호한 고용시장과 강력한 기업투자 호조로 미국 경제는 당분간 고유가-고금리라는 악조건을 이겨낼 것임

확산되는 중동지역 전쟁 불씨와 외교 슈퍼워크

미국과 이란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후티 반군간 군사 충돌이 격화되는 등 중동지역 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내 원유 및 정유시설을 공격한데 이어 수도인 리야드를 공격했다. 물론 사우디-후티 반군간 군사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호즈무즈 해협과 더불어 중요한 원유 수송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사우디-후티 반군 군사 충돌 격화로 원유 수송이 어려워질 경우 이미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중동지역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 결과 등이 중동 정세는 물론 국제유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지도자들과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란 문제와 더불어 사우디와 후티 반군 군사 충돌 등 홍해 수송로 위기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동회의를 앞두고 이란측은 일단 협상의 제스처를 보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19일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한 우리의 조건을 워싱턴에 전달한 카타르 중재자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 조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일단 강경한 분위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과 전쟁 관련해서 자신이 현재 "결정을 내리는 단계"에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매우 큰 일들(very big things)"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UN총회에 참석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히면서 강온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오는 11월까지 고율 관세 부과를 유예한 '무역 휴전' 연장 의제, 미-중간 AI발 충돌을 막기위한 안전장치 논의와 더불어 이란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여지가 크다. 동 회의 결과는 미국내 물가 및 국채금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란 문제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에 따라 국제유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금주 각종 회담이후 이란 문제를 포함한 중동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좀더 뚜렷하게 가시화될 수 있고 이는 국제유가 추가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9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국채금리가 일단 소강국면에 진입해 있지만 이란 등 중동지역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이 향후 국채금리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대변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과 더불어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견재한 추세를 유지 중이다. 이를 대변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다. 지난주(9월 6일~12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가 19.6만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건 감소했다. 노동절 연휴로 인해 동 청구건수가 다소 낮게 집계된 영향도 있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당사가 강조하는 'No Hire, No Fire' 고용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이다. 미국 신규 일자리 수는 매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강한 일자리 수 증가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신규 고용시장은 아주 좋지 않지 않지만 나쁘지는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경기 호황 수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해고건수가 낮은 수준임을 분명히 시사해주고 있다. 빠르게 진화하는 AI 개선속도와 기업들의 이익 호조가 맞물리면서 신규 고용에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동시에 해고는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No Hire, No Fire' 고용 상황은 소비경기가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있다. 고유가-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매판매가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양호한 고용시장과 기업투자 호조가 지속되고 있어 미국 경제는 당분간 고유가-고금리라는 악조건을 이겨낼 것으로 보인다.

그림1. 호르무즈 해협에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사우디-후티간 군사충돌로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5%가 영향을 받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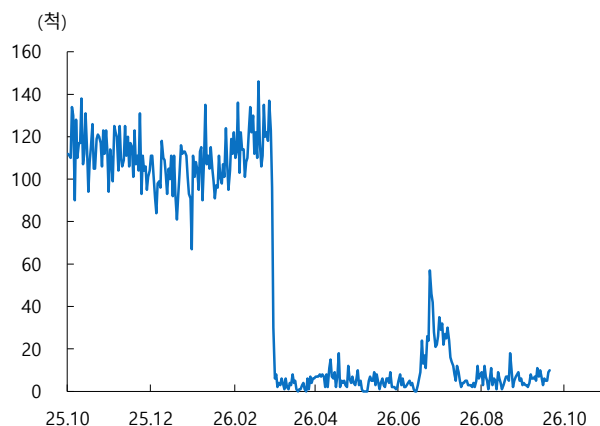


자료: 연합뉴스, 중앙일보,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전방위로 압박 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중앙은행)



그림3.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행 추이: 사실상 통행이 사실상 중단된 호르무즈 해협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낮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낮은 해고 추이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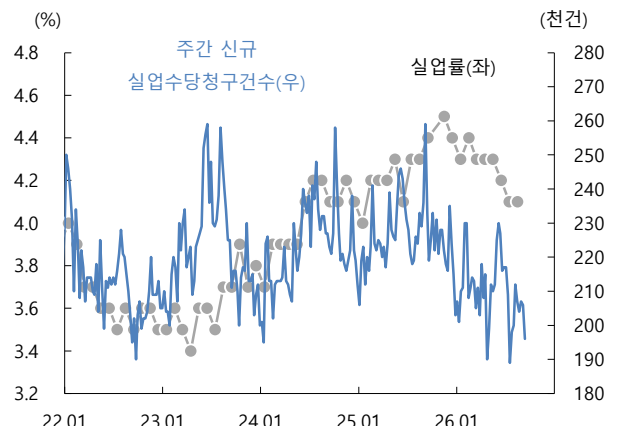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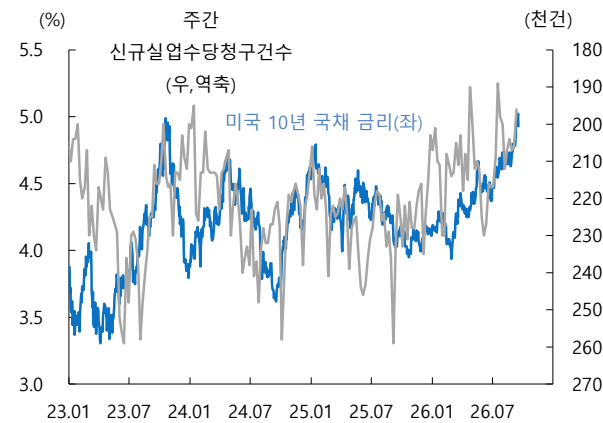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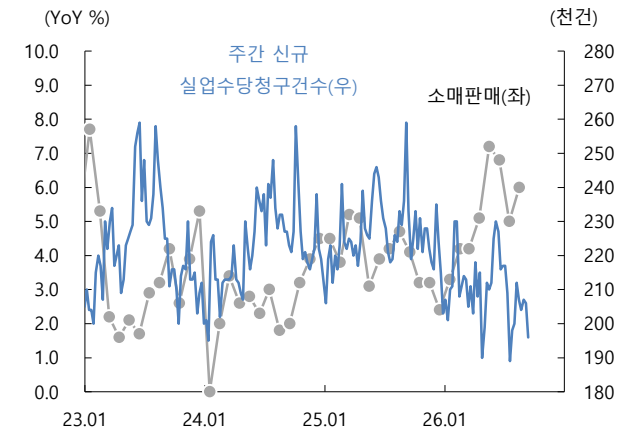


그림5.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와 미국 10년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와 소매판매 추이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